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0월 25일 ( 제817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내 맘 속의 전쟁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질문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 짐승이 살고 있단다. 하나는 거짓, 부정 등의 악이란 짐승이고, 하나는 정직, 긍정, 행복 등의 선이란 짐승이지. 너는 이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느냐?” 손자가 고개를 가우뚱하자 할아버지가 답을 말씀하셨다. “당연히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다. 매일 내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회사에서 막말하는 직원에게 대들까 참을까 내 속은 난리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 한 잔 먹을까 거절할까 또 싸운다. 늘 죄악과 선 사이에서 싸우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고,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각축전을 벌인다. 부정과 긍정이, 절망과 희망이 늘 싸우고 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는가? 선에게 먹이를 주면 선이 이기고, 긍정에 먹이를 주면 긍정이 이긴다. 반대로 거짓에 먹이를 주면 거짓의 짐승이 이겨 거짓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먹이를 어느 쪽에 줄 것인가 결정할 때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저 마음이 가는 쪽으로 먹이를 주면 때늦은 후회가 일 수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회의를 느낄 수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기준에 입각하면 늘 선이 이기고, 긍정과 인내가 이기고, 겸손이 이기게 된다.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현존하고 있고 늘 대립되어 싸운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엡6:12), 육체의 것에 먹이를 주면 육신의 일을, 영적인 것을 좇으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는 사망과 생명으로 갈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잡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히 육체의 법을 이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자.

당신은 선악간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는가?

# 고기 집은 고기가 맛있어야 한다

동두천예수중심교회가 지난 13일 성전 이전 및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으로 동두천 교회 담임인 김인옥 목사님과 참석한 자들을 권면하셨다.

“내가 많은 입당예배를 인도해왔지만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두천 교회와 김 목사님께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 집은 자고로 고기가 맛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목사 맛이 라는 겁니다. 목사가 맛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것처럼, 맛있는 목사는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은 안 해도 ‘그 목사 안 되겠네’ 하고 생각할 겁니다. 심방을 갈 때도 절대 젊은 여자 집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과 함께 가야 되탈이 없습니다. 또한 과부나 고아 같이 외롭고 힘이 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좀 있고, 좀 배운 사람만 높인다면,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삯꾼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역목회를 하려면 동네 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동네 분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인격적인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과연 목사 맛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식당의 맛은 고객이 판단하듯 교회의 맛은 성도들이 판단하고 주변 사람이 판단

심을 내면 칭찬을 해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던 유치원의 버스도 내주고, 당좌를 끊어서 교회건축헌금도 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꼴을 얻으려면 꼴통을 발로 차면 안 되지요.

그리고 큰 목사가 되려면 많이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웅이가 많은 나무가 거목이 되듯, 비록 내가 웅이가 박힐지언정 성도들을 잘 품어야 교회가 성장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동두천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 (2015. 10. 13)

보면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께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가끔 ‘내가 목사입네’ 하고 나이 드신 분들께 반말이나 하고 버릇없게 구는 목사들이 있는데, 천하에 무식한 자입니다. 그런 목사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또 젊은이들하고만 얘기하고 노인들을 찬밥신세로 만드는 자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자로서 르호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자지요. 젊은이에 관해서는 형제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하게 자매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들이 젊은 여자들하고나 다니고, 식사를 할 때도 젊은 여자를 옆에 앉힌다면, 다들 말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목사가 되세요.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릇에 예절이라는 음식을 담는다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의 쉼터요, 영·혼·육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물질과 몸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로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단에서 개 패듯 성도를 팬다면 되겠습니까? 다 떠나고 말지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가 넘쳐 교회에 돈을 들여 이것저것을 살피고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나더러 ‘원규 아버지, 그만 하시죠.’ 이러는 겁니다. 성도가 열

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목회 초기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일꾼이 마구 몰려와 오늘의 예수중심의 기틀을 잡은 겁니다.

나는 오늘 목회의 기본을 전했습니다. 기본이 확실해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김인옥 목사가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행동하여 동두천에 우뚝 서는 교회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30년! 기본을 다지고, 기본에 충실함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더 크게 다시 시작하는 예수중심교단, 교회가 되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추계산상집회

10월 26일(월) ~ 29일(목)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61-392-0633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0:35~11:2)



# 꿈이 있는 자는 포기를 모른다

이번 코스타리카 집회 첫날은 좋은 날씨 속에 순항했으나 둘째 날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모든 장비들이 철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왕 목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야외집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교회로 옮겨서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외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사전에는 오직 최선만 있을 뿐, 차선은 없기 때문입니다. 집회 장소에 나가보니 비는 멈췄지만 무대천정은 바람에 찢겨 있었고, 모든 앰프시설은 철거되어 마이크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회에 참석한 자들을 가까이 모으고는 의자에 올라서서 육성으로 한 시간 정도 설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저를 보시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래 전 포항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포항의 한 학교운동장에서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계의 압력을 받았는지 학교 측에서 갑자기 장소제공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보니 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집회 시간은 다 되었고, 사람들은 학교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문 꼭대기에 올라가 설교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집회 장소가 없어서 구미에서는 운동장에서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설교했더니 그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장을 빌려줘서 집회를 했던 일이 있었고, 천안의 청소년회관에서도 담장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으며, 대전 기독교회관에서 집회 중에 전기

맞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압박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위 골되는 지경에 처한 야곱,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기를 청했으나 야곱은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기필코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의 사자도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창32:22~32).

엘리아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기 위해 갈멜산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

도 했고 (왕상 18:19~46), 엘리사는 기필코

엘리아보다 갑절의 영광을 받겠다고 엘리야를 쫓더니 그의 계승자가 되어 정말 갑절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도 꼭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목청껏 불러 소원을 이뤘고(막10:46~52),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취급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딸이 고침을 받았으며(막7),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결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일군 쾌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반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임다, 꼭 아들을 얻고야 말겠다고 기도한 한나, 이 모두 포기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에게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역경에 무릎 꿇지 않고 일어나 마침내 소원하던 것을 이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영·혼·육에

성공한 자들은 다 역경을 이겨내는 역경지수(AQ)가 높다는 통계가 있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0:38).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7~8).

요즘 3포, 5포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다섯 가지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연애, 결혼, 취업 등을 포기한 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왜 벌써 포기라는 말을 씀니까? 취업이 힘들고, 돈 벌기 힘들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다 포기한다는 말인데, 여러분의 부모들은 힘 안 들이고 여러분을 낳고, 힘 안 들이고 가르치고, 힘 안 들이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한 줄 압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 비밀 언덕이 없어서 그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옥에 들어가는 등, 참으로 험난준령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곡식 단들이 자기 단을 향하여 절하던 꿈과 해와 달, 그리고 열 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을 마음

판에 새겨두었습니다. 그 꿈이 없었다면 요셉도 억울함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기에 늘 정직했고, 언제나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약관의 나이에 영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을 견뎠습니다. 노임을 착취당하고,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먼저 맞는 아픔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약속보다 7년 동안 일을 더해서 마침

## 소망의 열도와 응답은 정비례한다

내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창29:18). 예전에 사하라 사막을 건넌 사람은 군인들과 장사꾼들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복자와 거부의 꿈이 있었기에 죽음의 모래바람 속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은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꿈을 갈취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인생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는 허상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를 보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골리앗 같은 문제도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했고, 기필코 열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열매를 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 우리에게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뿐이다

를 내린다고 하길래 베니스의 상인에서 '피만 안 나게 살을 떼어가라'고 한 것 처럼 '전기는 끊되 불만 들어오게 하라'고 강하게 대항했었고, 부산 집회를 위해 공항에 갈 때 길이 막히자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타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제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기질 탓인지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네 친구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 네 명의 친구가 연합하여 예수님 곁에 가려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네 명의 친구는 '아쉽지만 그만두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어 병든 친구를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요셉을 모방해라

모방(模-찾을 모, 倣-본받을 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나 방법을 찾아서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흔히 듣는 말로 ‘벤치마킹(benchmarking)’ 하는 것이다. 잘못 모방하면 짝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 갑절로 좋은 제품과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 세상 원리다. 창조는 하나님뿐이고 모든 것은 다 모방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 끝내 따라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갑절의 능력을 얻은 것과 같다.

어찌 보면 세상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성공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성공한 자를 따라하면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신대로 가르치신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축을 해서 큰 재물을 얻고, 나라를 건져 유명한 사람이 된 요셉을 모방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로 임명받은 후, 즉시 창고를 처처에 짓고 풍년에 모든 곡물의 20%를 사들여 쌓기 시작했다. 과연 바로의 꿈대로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몰아닥쳤다. 요셉의 때가 온 것이다. 그가 쌓아놓은 곡물을 백성을 위해 무상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훨씬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했다. 백성들도 ‘내년에는 괜찮겠지?’ 했지만 결국 7년 흉년은 계속 되었다. 마침내 짐승까지

지, 전답까지, 나중에는 자신들의 목숨까지 잡히고 식량을 사게 되었다.

요셉이 잔인한가? 아니다. 당연히 얻을 것을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날에 다 먹어 치우지 않고 어려운 때를 위해 저축한 대가를 아무지게 얻어낸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흉년이 풀리자, 백성들에게 땅과 씨앗을 나눠주며 농사는 짓게 해주고, 전 백성에게 소출의 20%를 토지세로 내게 했다. 혼자 20%를 저축하다가 이젠 온 백성이 감사로 나라(바로)를 위해 20%를 저축하게 한 격이 되었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나는 청소년들에게, 청년·대학생들에게 기회만 되면 저축하라고 외친다.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젊어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것이 저희들의 장래를 풍요롭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축으로 모은 돈을 합부로 투자하여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인심 쓰지 말고 요셉처럼 아무지게 관리하라고 교육한다. 교육하고 신신당부 한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동문에서 솟은 작은 샘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니까 도랑이 되고, 내가 되고, 마침내 강물이 되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았다고 한다. 작은 샘도, 작은 기도도, 작은 저축도 계속되면 어느 날 창일한 강 같은 역사가 영적, 혼적, 육적, 물질적으로 일어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리라. 요셉을 모방해서 부자가 되어 나눠 주며 살아보자.

이시대 목사

## 주경미락

슬읏 타는 오곡의 박수소리  
비탈길 내려오니 자동차 경주 치열하구나  
종착역은 정해졌건만 무엇이 그리도 바쁘는지  
황금들녘은 자신의 종착역도 모르며  
덩달아 바람에 춤추며 응원하구나  
자신의 내일을 모르는 아름다움이라  
내일이면 순교길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밥상에 오를 날을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꽃 지피구나  
아름다워라 아름답도다  
다정히 전봇대 참새도  
즐거워 속삭이며 알곡에 웃음 보내니  
버스 속 할배 할매 손 흔들며  
세월도 빠르기도 하구려  
서로 보며 웃음 짓구나  
우리 인생 종착역도 저와 같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기를  
기도하듯 마주보며 야릇한 웃음 짓구나  
가을 산 기암절벽 위용은  
울긋불긋 단풍 불꽃 속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창조주 신비함을 노래하구나

2015.10.5 기도원 가는 길에  
朋友



::세상을 보는 창::

# 오직 쫓대를 향하여 뛰라

얼마 전 앞으로 있을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뮤지컬을 담당할 청년 10여명과 함께 Man of Lamancha(맨 오브 라만차) 뮤지컬을 보았다. 즐거리는 스페인의 어느 지하 감옥….

신성 모독죄로 감옥에 끌려온 세르반테스는 죄수들과 함께 감옥 안에서 즉흥극을 벌인다. 라만차에 살고 있는 알론소는 기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은 탓에 자신이 돈키호테라는 기사라고 착각하고, 시종인 산초와 모험을 찾아 떠난다. 여러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는 돈키호테를 많은 사람들이 미친 노인이라고 무시하지만, 결국 그의 진심에 감동받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많이 감동 받았던 부분은 이를 수 없는 꿈 노래 중에

“꿈, 이를 수 없어도, / 싸움, 이길 수 없어도, / 길은 험하고 험해도, /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쫓으리라. / 이게 나의 가는 길ियो. /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리라(The Impossible Dream).”

이 뮤지컬은 꿈과 암흑 같은 현실사이에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단순히 자신이 기사라 믿는 미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닌 꿈을 좇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이 뮤지컬을 보면서 삼포, 오포, 칠포 세대들이 생각났다. 이른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시대’에 이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시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들은 현재 취업시장의 문턱에서 수십, 수백 장에 이르는 이력서를 쓰다가 ‘실신’할 정도로 자신감보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 학자금도 상환해야 하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생들은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단 우리 교단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도전하며, 기도하지만 그들이 직접 마주하는 세상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렇다고 목표 없이 스펙을 준비하다 보면 더 나은 스펙 앞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연관된 준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취업의 지름길일 것이다. 이때 자신

의 ‘역량’을 자신만의 시각과 해석이 들어간 경험과 어떻게 연결 짓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열정이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어떠한 경험과 도전을 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역량을 펼칠지 기도하며, 나 보다 더 나은 스펙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다른 브랜드로서 보여주어야 한다. 남들보다 ‘나은 스펙’이 아니라 ‘나만의 다른 경험’으로 승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오직 나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의 브랜드로 세계를 다니시며 자신의 삶을 지금도 만들고 계신 분이우리 목사님이시다. 모방은 제 2의 창조라고 했다. 위기가 올수록 더욱 하나님 편에 서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보자!

“누가 미친 거요? 장차 이를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포기하는 그대들이 미친 거요?” (Man of Lamancha 대사 중에서)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귀를 기울이세요

몇 달 전 지인의 추천으로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다룬 뮤지컬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에 낳은 여성순교자 중 으뜸으로 뽑히는 분으로 신안군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울 만큼 전도의 사명을 다하신 분이였다. 문준경 전도사는 ‘고무신행전’이라는 말이 말해주듯, 일 년에 고무신 아홉 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전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6·25 전에 뚝단배를 얻어 타고 작은 섬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사람의 집문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고, 반신불구자나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노인들, 전염병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과 헌신정신을 영혼구원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지금도 신안군에는 많은 교회가 남아있고, 주민이 300여 명 밖에 살지 않는 병풍도라는 섬에서는 섬 주민 80% 이상을 기독교신자로 만들었다고 한다. 무속신앙이 많은 바닷가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큰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우리 교회에도 문준경 전도사 같은 분이 많이 있다. 한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백발에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으라며 전도지를 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중심교회의 전도지였는데 순간 왈칵 눈물이 났다.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권사님의 발걸음이 아름다워 편의점에 달려가 따뜻한 꿀물을 사서 손에 꼭 쥐어 드렸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방전도 및 노숙자선교 등을 하고 있는 권사님이 많은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 받은 교회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기자:** 목회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해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셨는지요?

**김 목사:** 2002년에 시작하여 목회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전도사 7년, 목사 7년).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학생회장을 하며 기쁨으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때는 사업으로 성공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보필하기 위해 신학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생각과는 달리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고, 2007년 친구의 인도로 포항집회에 참석하여 영적 깨어남(회복)을 경험하고, 2008년 5월에 대구예수중심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 3일 금식을 3회 하면서 꿈을 꾸고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본 환상이 생각났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난 도로 위를 그보다 몇 배 빛나는 옷을 입은 예수님이 저편에서 다가오시는데 저는 예수님을 피해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시고는 “왜! 네가 나를 피하느냐?” 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듯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피하지 말자 생각하여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기자:** 동두천 교회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입당하기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도움을 주신 분께도 이번 기회에 인사를 하시면 좋겠네요.

**김 목사:** 2008년 6월 안수를 받고 부임했

## 입당예배를 드린 동두천교회 김인욱 목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습니다. 성전 이전하기 전 예배당은 2층에 가정집을 개조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1층이 가정집이라 철야예배 때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전 이전을 두고 많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이전 수리에 제가 오십 권으로 힘들어 할 때,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기쁨으로 2개월 동안 수리했습니다. 교육관이 없어서 다시 3층을 확장(교육관, 식당) 수리 할 때도 성도님들이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두 달 이상을 걸려서 2층 성전도 넓혔습니다. 이전하면서 성물을 모두 새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절약하여 모든 물질을 건축헌금으로 내놓은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이전과 확장 수리할 때마다 오셔서 도움을 주신 신영근 장로님과 오상환 장로님 외 많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김 목사:** 창립 13년 만에 목사님 첫 예배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예배 준비와 한 영혼을 위해 전도에 시간과 물질로 동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힘에 버거울 정도로 교회 일에 동참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도님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리고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요?

**김 목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나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향기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가 상처주고, 상처 받고 합니다. 목회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전한다고 다짐하고 목회를 하지만, 저 자신도 성격이 급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언행일치하지 못할 때 힘들어서 애통하며 나아지려고 기도합니다.

**기자:** 총회장 목사님께 평소 드리고픈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세요.

**김 목사:** 1년 전, 동두천 방문길에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셔서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부정적인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모습, 제자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지혜를 배워라’, ‘노력하라’는 말씀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백문백답이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닮아 가기를 원하시는 만큼 애정을 갖고 더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기자:** 동두천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 목사:** 말씀중심, 교회중심, 예배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인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됩니다. 미래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부서 조직과 함께 교회가 이 사회에 소망을 주고 빛과 소금이 되어 영혼 구원의 열정을 사모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양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는 찬양 가사에 맞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 채움과 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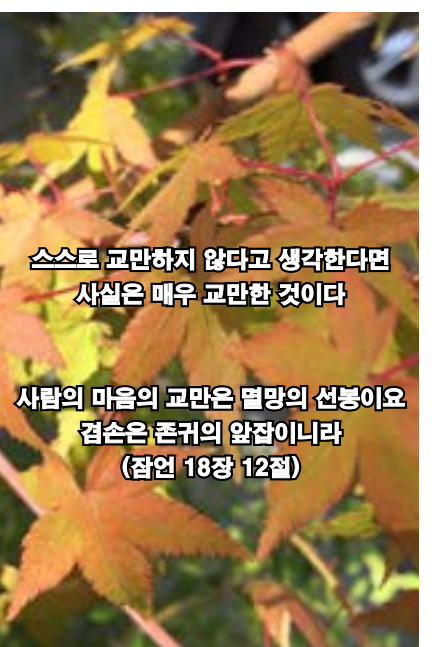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눈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서 하찮은 바람에도 잘 넘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끔은 눈에 물을 빼고 논을 비워 줘야 벼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빼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쓸 만한 장기와 시신은 모두 병원에 기증하라. 죽어서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것이 더 낫다. 유산은 맹인복지에 써라.” 평생을 의료사업과 한글사랑에 헌신해온 외길 90년 공병우 박사의 유언입니다.

그는 한국 안과 의사이자 한글 타자기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관심 속에는 늘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아름다운 의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틀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을 만큼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나 묘지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갔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마지막 채움의 삶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남산 1호 터널 통행료를 1000원정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만원을 내면서 “내 뒤로 오는 차 아홉 대를 그냥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아홉 사람은 단돈 천원에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이 바로 채움 때와 비움 때를 아는 지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땀 흘리며 열심히 채우는 목적이 바로 참된 비움을 위함인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매우 교만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 Good News

기적이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이 엄청난 사실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풀려고 하니 역측이 난무하고 과학적인 주장들이 오히려 더 비과학적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풀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명확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우연의 일치라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천지만물은 만드신 자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지구에 빙하기가 오거나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누군가 만든 자가 있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우매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니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는 순간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보이

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신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후에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